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피지컬AI 혁명으로 전북 대도약

민주 전북 후보들, 비전 공동 선언

도지사·전주시장·군산시장·익산시장  
완주군수·부안군수 후보 등 '정책 연대'  
규제자유특구·현대차 전략 인프라 선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등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들이 피지컬AI 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공동 선언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와 조지훈·김재준·최정호·유희태·권익현 예비후보는 11일 전북대학교 피지컬AI 실증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지컬AI 대혁명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떠오른 피지컬AI와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주당 후보 간 정책 연대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정 △국가연구원 설립 △AI 교육센터 구축을 공약했고, 조지훈 예비후보는 피지컬AI 벨트 및 AI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김재준 예비후보는 현대차 전력 인프라 선지원과 기가아트급 태양광 단지 확보를 최정호 예비후보는 산업단

지 AI 전환을 약속했다.  
유희태 예비후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권익현 예비후보는 피지컬AI·방산·수소 복합 제조기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선거대책위원회 단계부터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후보 직속 피지컬AI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도지사 직속 위원회로 확대해 도정과 시군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강력한 추진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와 인공지능산업협회, IT산업협회,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피지컬AI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후보들은 끝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하나의 원팀으로 전북 산업지도를 새롭게 바꾸겠다"며 "도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전북을 대한민국 AI산업의 중심지로 반드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1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에서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후보들은 "정동영 의원이 초석을 놓은 1조원 규모의 피지컬AI 기반 조성사업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의 9조원 규모 새인금 투자로 전북의 미래산업 전력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전북 앞에 새로운 대도약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1조 원, K-로봇 피지컬AI 실증 공유센터 구축에 2200억 원, AI 신도시 혁신센터 구축에 4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첨단 반도체 설계부터 로봇 부품 실증 데이터 운용, 핵심 인재 양성까지 전북 안에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북은 대한민국 피지컬AI 대전환을 가장 앞서서 이끄는 선도 지역이 될 것"이라며 "전북 전역을 피지컬AI 거점으로 연결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후보별 공약도 제시됐다. 이원택 예비후보는 △피지컬AI 규제자유특구 지

## 도내 숨어있는 위기가구 도민 '손끝'으로 찾는다

전북자치도,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확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중심 신고 연계 강화  
익명 신고·사진 첨부 기능... 맞춤형 지원 연계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확대에 나선다.  
도는 11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도검침원·우체국 집배원 등 생활 현장 접점이 많은 인적연결망을 중심으로 앱 활용과 신고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 단절로 발견이 늦어지는 사례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위기 상황을 본인 또는 이웃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해당 앱은 최근 1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약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을 처리했으며, 전체 신고의 16.5%는 이웃이 위기 상황을 알린 사례로 나타났다.  
앱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관할 읍면동으로 전달되며, 상담과 확인 절차를 거쳐 긴급복지 지원과 민간 복지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

스로 이어진다.  
특히 신고 시 현장 사진 첨부와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GPS 기반 위치정보를 활용해 관한 지자체로 신속하게 연결된다.  
전북자치도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수도검침원, 우체국 집배원 등 생활 현장 접점이 많은 인적연결망을 중심으로 앱 활용 홍보를 확대하고, 위기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현장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 가구에 대한 초기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복지위기 알림'을 검색해 설치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포털 '복지도'를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복지위기 상황은 주변의 작은 관심과 제보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 누구나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교육발전특구 3년차... 11개 시군서 현장 의견 수렴

전북교육청, 전북자치도와 지역교육 혁신 성과 합동점검  
익산교육발전특구 방문 시작으로 내달 17일까지 순차 방문

는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24년 교육부 1·2차 공모를 통해 총 1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북교육청과 전북도가 구축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우수 사례와 교육 혁신 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협력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첫 일정으로 11일 익산교육발전특구를 방문했다. 익산교육발전특구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 밀착형 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과 AI 교육,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14일에는 부안교육발전특구, 15일에는 남원교육발전특구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시범사업 3년 차 운영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향후 교육부의 정식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현재 11개 시군 모두에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에 강화해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